

1992. 4.29 LA 폭동 자료

중앙일보 Los Angeles(LA) 판

Prepared by Eui-Young Yu

Professor Emeritu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irector, Korean American Coalition - Census Information Center

1989년 7월

26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한인상점서 9세 어린이 총격에 흥분 이웃가게 약탈 등 인종문제로 확대기미 -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흑인촌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인이 20일 말다툼 끝에 가게에 있던 흑인 소년 을 총으로 쏘 중태에 빠뜨리자 흑인주민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킴스 기프트 & 크래프트』 가게를 운영하는 교포 김태환씨(28)는 사건 당일 가게에 들어온 흑인소년 네 명과 언쟁이 붙어 이들 흑인소년들이 밖으로 달아나려 하자 들고 있 던 캘리버 권총을 발사, 이중 한발이 데이빗 무어군(9)의 뒷머리를 관 통했으며 사건직후 이웃 이발소 중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체포했 다.

28일: 흑인 보복테러 대비 경찰, 특별병력 배치 -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인경영 가게에서 주인 김태환씨의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진 데이빗 무 어군(9)이 사건 발생 7일째인 26일 밤 8시경 숨을 거두었다.

1991년 3월

18일: 수세 물리던 여주인이 호신용 총으로 사살 - 16일 오전 9시 45분 경 피게로아 & 92가 코너 - 사건경위. [정당방위] 여부 수사 중. 16일 오전 9시 45분 쯤 피게로아와 92가 코너 인근 9727 S. Figueroa St. 소재 [엠파이어 리커마켓] (대표 빌리 두)에서 오렌지주스를 훔치던 신원미상의 15세 흑인소녀가 이를 저지하던 마켓 여주인 두순자씨 (49)와 언쟁과 함께 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두씨가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1991년 6월

6일: 한인마켓을 털려던 40대 흑인 강도가 또다시 대가를 치렀다. 4일 오후 5시15분쯤 사우스 LA 7919 S. Western Ave.에 위치한 『존스 리 커』 (대표 박태삼.44)에 침입한 인근거주 흑인 리 미첼(41)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권총이 있는 것으로 가장, 주인 박씨와 부인을

위협하다 박씨가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1992년 4월

24일: 박태삼씨가 경영하던 존스마켓에 도둑이 들어 물건 장비 등

2만불어치를 몽땅 털어 갔다. 그는 22일 그 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에 가보니 내부가 텅 빈 채 방화 흔적까지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존스마켓은 박씨가 지난해 6월4일 가게에 침입한 흑인강도 리미첼(41)을 총으로 쏘 숨지게 한 후 흑인 커뮤니티의 강한 반발을 받아오다 10월3일 한 흑 커뮤니티 관계자들의 합의로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24일: 한흑연맹(Black-Korean Alliance)은 23일 오전 11시 남가주기독교교회 (4182 S. Western Ave.)에서 두순자씨 판결과 관련, 주 항소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1992년 5월

13일: 상처 입은 한인 위로 - LA필, 23일 타운서 사랑과 화합의 콘서트.

새로운 LA를 위한 무료 이웃 연주회

13일: 본국성금 - 1천만불규모 대한적십자사 통해 일괄송금

13일: 성금창구 단일화 마땅 - 박종상 LA 총영사는 12일 『하루속히 성금지급창구가 단일화돼 효과적이고 규모 있는 성금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총영사는 또 자신이 한국일보에 설치된 별도의 재해대책위를 방문, 격려한 것처럼 왜곡 보도된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11일 한국일보를 찾은 것은 성금 운영의 단일화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일보의 개별성금지급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13일: 민단성금 20만불도 대책본부측에 전달.

26일: 흑인 고용확대 요구 - 2개 갭단 대표 한인커뮤니티 인사와 만나 흑인 지역에 은행지점. 공동사업 추진등 논의 - 흑인갭단의 양대산맥으로

4. 29 폭동과 맞춰 최근 연합공동체제를 이룬바 있는 『블러즈』와 『크립스』가 한인사회를 보호하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나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러즈』와 『크립스』양측갭대표 4명은 25일 오전 10시 한인타운내 월셔 코리아나호텔에서 한인커뮤니티 인사 3명과 접촉을 갖고 5개항에 이르는 한. 흑 커뮤니티 공동협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토의에 들어간 양측인사들은 ▲한인커뮤니티측이 1차로 4명의 흑인을 타운업소에 고용하고 ▲한인은 행지점을 흑인커뮤니티에 신설해 흑인 커뮤니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흑인 갭단들이 한인커뮤니티 내 한인업소는 물론 한인 타운 내 업소에 대한 경비를 맡도록 하는 5개안에 대해 논의했다.

26일: 얼굴가린 갭대표- 「리즈」라고 이름을 밝힌 「블러드」측 갭단원 대표가 25일 월셔 코리아나호텔에서 한미식품상협회 관계자들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인업소에 대해 흑인갭들의 협조를 밝히고 있다.

29일: 「LA폭동」 그후 한달 - 한인촌 복구삽질 “구슬땀” “흑인촌서 장사 안 하겠다” 이주 추세. 관광객 줄어 “찬바람” 역이민도 급증

29일: SBA옹자 나왔다 - 1차 한인 4명등 11명에 첫지급. 28일 현재 5백28건 접수 42건 옹자승인

29일: 흑인과 만남 대책협의 - 범 교포 피해 대책 본부 전체회의. 피해대책 본부 임원들외에 전미식품상협회 김양일회장, 남가주한미식품상협회

김치현 회장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피해대 책
본부 관계자와 식품상협관계자들간에 흑인갱 면담을 놓고 설전이 벌어져
장내 분위기가 한때 긴장되기도했다.

30일: 4. 29폭동 한달 타운방법대의 현주소 / 7개단체 “중구난방” 협조체제
구성 단일화 시급 - 폭동이전부터 존재했던 방법단체는 방법특별위원 회,
한인경비사협회, 코리아타운위치팀(KWT), 햄워치팀, 한인청년단 등 모두
5개. 여기에다 폭동중 한인타운을 지키다 폭동이 가라앉자 상설 방법기구
로 전환된 해병동지회와 신설된 자경단까지 합치면 한 인타운에는 모두 7
개의 방법단체가 구성돼 있는 셈이다.

1992년 6월

2일: 누락 450여명에 추가성금 지급 - LA 폭동범교포대책본부 성금분과
위 (위원장 하기환)는 지난 29일 누락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성금을 지급.

3일: LA한인업소 9천2백7개 - 중앙업소록 분석 1년새 26%늘어 업종별로는
병원 으뜸. 서부지역 전체 1만2천4백28곳 영업

6일: 김이철씨 살인범 체포 - 히스패닉 3명 경찰 살해사건과 동일범.

8일: 성금창구 단일화됐다. - 논란 한달만에 한국일보측, 잔여성금대책본
부로 이관. 사용처 구체화등 합리적 자금운영 기대. 접수한 성금을 개별
지 급해 오던 한국일보사가 잔여금액을 6일 피해자협회(회장 이정)를
통 해 4. 29 폭동 범교포 대책본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던 성
금창구가 사실상 단일화 됐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이날 오후2시 피 해자 공
청회가 열린 협회(한미장로교회)를 방문, 「1차 지불된 긴급생 계비를 제
외한 잔여금액을 피해자협회에 전달한다.」 고 밝히고 이정 회장에게 성금
을 이관했다.

9일: 본국 직접지원 어렵다.- 정원식총리, 폭동피해자 면담서 밝혀

9일: 본국 정치인 잇단 방미 “허풍지원” 실현성없는 거액약속 남발. 피해
자 우롱 - 현재 LA를 이미 방문했거나 방문중인 본국 정치인은 허송
외 무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정부조사단을 비롯, 김남민자당의원. 김
대 중민주당공동대표, 김동길국민당최고위원, 정원식국무총리, 김종필
민 자당최고위원등 줄잡아 10여명 선.

19일: 타운재건기구 결성추진- 공인회계사. 변호사협등 참여 피해대책본부
는 발전적 해체. 대책본부 간담회에서 논의.

1992년 7월

3일: LA 폭동 한인 업소 피해 버몬트. 웨스턴 가장 극심 - 마케팅전문조사
Shinyodo USA조사- 전소. 약탈 269곳. 전체 20%몰려, 업종별로는
리 커. 마켓 최다. - 마케팅 전문회사인 「Shinyodo USA」 사가 LA폭 동당
시 직접피해를 입은 LA인근지역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에 따르
면 스왑밋을 제외한 1천3백30개의 한인 피해 업소 가운데 약 28%에 달하
는 3백66개업소가 리커. 마켓이었으며 또 전체 피해업소 중 10%에 해당
하는 1백28개 업소가 「90006」 지역에 들어있었던 것 으로 집계됐다.

3일: 브래들리 면담 별 무소득- LA폭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
를 18일째 벌이고 있는 한인피해자협의회는 2일 탐 브래들리 LA시장을
만나 시의 보상책제시를 요구했으나 브래들리 시장은 미온적인 태도 로

일관,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 못했다.

8일: 시청직원들 한인시위대에 잉크병 던지며 야유 - 브래들리, 한인들에게 체 진상조사 약속

8일: 본국성금 도착- 총영사관 「피해자 뜻에 따라 사용될 것」

8일: 할린즈유족 민사소송 취하 - 30만불로 완전합의

8일: 샌퍼난도 빨리 리커면허 규제. 45일간 유예 뒤 주민여론 따라 발급 - 샌퍼난도 시의회는 6일 추후 신규라이선스 발급시 45일간의 판매유예 기간을 뒤 이 기간 주민들의 찬. 반 여부를 들은후 최종 라이선스를 발급키로 했다.

8일: 흑인, 칼린 소환운동 수포/ 투표가능 서명인원 못채워 - 조이스 칼린 판 사 소환이 물건너갔다. 칼린판사의 두여인판결에 불만을 품은 흑인들이 시작했던 칼린판사 소환서명운동은 마감일인 6일까지 소환투표가 능선인 서명인원 30만4천1명에 미달하는 바람에 소환투표는 불가능하게 됐다. 칼린판사 소환서명운동을 주도해왔던 퍼트리셔무어캄튼시의 원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설사 소환투표를 통해 칼린판사가 소환되더라도 이번 12월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유나이티드웨이 - 폭동기금 긴급지원 - 유나이티드웨이 LA지부는 2. 29폭동과 관련한 복구활동에 나선 6개 사회봉사기관에 총 7만1천3백 40달러의 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8일: 피해자협, FEMA 총담당관 면담 . 요구 관철 시켜. 6개항 제시에 특별 법적응동 선처 약속

14일: LA타임스 아시아계 갈등 크게 보도 “단합노력에 찬물” - 연대의식. 동 질감보다 문화. 언어적 차이 부각. 폭동피해 원인도 한인들에 돌려 반 목부추겨.

14일 : 성금운용 둘러싸고 왜 시끄러운가 - 7백만불 놓고 “티격태격” -성금 의미 살려 효율적 사용(대책본부). 펀돈이라도 일괄지급 마땅(피해자 협). 성금운영에 관한 입장에 일부 피해자그룹과 범교포 대책본부간의 차이가 심하다.

16일: 박봉준변호사 LA타임스에 기고 - 정부. 언론이 한인재기에 “찬물”인 종편견적 보도. 능력보상등 희망적어.

16일: 피해자 단체 “각개약진” - 단체별 이해 달라 효율적 보상책 한계. 식 품상. 스왑밋. 부상자협결성. 분열 인상도.

18일: 흑인지역서 장사 손떼겠다. 65% - 피해식품상협 설문조사 “권리금 보상받는 즉시 이전 - 16일 LA 폭동 피해식품상인협의회(회장 서정준) 가 리켜. 마켓 상인피해자 1백9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중 65%인 1백27명이 시정부 및 카운티로부터 권리금 보상을 받는다면 현재 비즈니스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22일: 불신과 상처뿐인 성급한 결정 - 본국 성금 일률분배의 배경 - 일부 피해자들의 「성금일률지급」 주장이 시위등을 통해 그치지 않고 20일에는 두 번째로 총영사관이 피해자들에게 접거당해 업무가 마비되는지 경에 이르자 LA시각으로 21일 새벽 본국대책위는 긴급훈령을 보내고

성금을 대책본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률분배 하라고 지시했다.

22일: 일부 집단행동 이해못해(성금관리위원장 하기환씨) - 본국성금의 사용 방안을 두고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있는 동안 범교포대책본부 하기 환 성금분과위 위원장은 농성피해자들에게 제지당해 총영사관 5층 층 무영사실에 3시간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22일: LA 성금 싸고 싸움 할땐가 - 4.29 LA 폭동피해 교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기를 기원하며 본국과 미국 일본등지에서 보낸 성금 7백 여 만달러를 놓고 교민들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더니 급기야는 농성에 완력행사까지 발전했다는 소식이다.

22일: 4.29 폭동때 한인업소 타깃 “흑인방송, 약탈선동” - 인권단체서 조사 FM 90.7, 한인추방 방법등 소개. 한미공익법률법인, 법적대응책 검토 - LA지역에서 많은 흑인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한 라디오 방송이 지난 1년 동안 한인에 적대적인 인종 차별적 프로그램을 꾸준히 방송 해 4.29폭동때 한인업소등에 대한 흑인폭도들의 약탈. 방화를 부채질 한 것으로 인권 단체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폭력반대연합 (Anti-Violence Coalition)은 흑인 유력 FM방송인 KPFK(90.7)의 프로그램을 1년간 면밀히 조사한 후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방송이 매주 수요일 하오 7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한인들을 흑인커뮤니티에서 몰아내고 흑인지역은 흑인손에 넣어야 한다는 선동적인 내용을 육감적인 음악에 곁들여 전함으로써 한 인을 흑인 폭행에서 비롯된 폭동의 속죄양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23일: 폭동피해자 구호 생필품 전체 아시아계로 확대 전달 - 한미구호 봉사 기구는 22일 회견을 갖고 앞으로 구호품 배급을 전 동양계 피해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강압분배는 원천 무효. 피해 상인식품상협등 4개단체 일제히 성명 - 관리위 거쳐 정당하게 나눠져야 - 7백만달러의 폭동성금이 21일 영사관 회담에서 피해자협회(대표 이정)에 넘겨진것과 관련 또 다른 피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각 단체에서 이에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 (회장 심항구), 남가주 공인회계사 협회(회장 최상봉), LA폭동피해식품상인협의(회장 서정준), LA 폭 동피해 스왑밋협회 (대표 임원식)등 4개단체는 22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금분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7백만달러의 폭동성금은 성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정당하게 분배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사실 - 하루속히 “성금 악몽”에서 헤어나자

23일: 성금 지불정지 요청. 하기환위원장 “물리적 힘에의한 강제이서는 무효” 이정대표“피해자 우롱처사... 강력 항의 하겠다.” - 범 교포 대책본부 성금관리위원회 하기환위원장은 21일 피해자협의회에 전달 되었던 4백45만달러의 본국성금에 지불정지를 요청했다.

30일: 총영사관 성금처리 관련 발표문 - 성금분규는 전교민의 불명예. 관계 당사자 조속한 합의 필요. LA 총영사관은 29일 「본국성금처리에 관한 발표문」을 내고 관계당사자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31일: 시위지원명목 10만불 전달- 성금관리위 피해자협에 다음 모임때 조직 확대개편 논의 - 범교포대책본부 성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기환)는 2 일 오전 코라아센터빌딩 12층 사무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한인피해자협의회(대표 이정)측에 시위지원명목으로 10만달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1992년 8월

1일: 본국성금 행방묘연 - “개인돈도 아닌데” 피해자들 강한반발. 협의회측 선 “접수 끝나는대로 자체지급” 고집- 법원에 공탁중이던 본국 성금 4백 50만달러를 지난 4일 피해자협의회측에서 찾아간지 1주일의 지나도록 피해자협의회가 성금의 행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자협의회의 한 관계자 는 본국성금의 소재에 대해 단지 「비영리단체인 피해자협의회 구좌에 입금돼있다.」 고 밝히고 입금돼있는 은행에 대해서 「성관위에서 다시 한번 성금을 동결할 염려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는 종래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6일: 잔여성금 6일부터 분배. 성금관리위 수표서명권자에서 이정씨 제외 - 피해자협의회 이정회장이 법원에 공탁된 본국성금 4백50만달러를 찾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금관리위원회 구좌로 이관치 않자 성금관리 위원회는 5일 낮 12시 강남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위원회 잔여성 금에 대한 분배를 즉시 실시키로 했다. 위원회는 잔여성금 2백 10만 달러 중 공익기금 1백 10만달러를 제외한 1백10만 달러에 대해 빠르 면 6일부터 폭동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자순으로 성금을 지급키로

했다.

6일: 출범 100일 맞는 한미구호 봉사기구 - 폭동 직후인 5월1일부터 「사랑 의 장터」 로 시작. 지난 6월24일에는 비영리단체로 가주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미 구호 봉사기구(회장 황익수. 구 한미생필품 보급위원회)가 오는 8일로 출범 1백일째를 맞는다.

6일: 출범 100일 맞는 한미구호 봉사기구 - 영속적 봉사단체로 발돋움. 6만 여명에 2백만불어치 생필품 배급. 무숙자 보호 주선. 빈민층에 식사 제공

7일: 미행가도 한인들 노린다- 폭동이후 사우스센트럴 LA 출퇴근 상인들 수 난, 폭동지역 대상업소 줄자 뒤따라와 집털이. 평소 출퇴근. 매상까지 파악.. 2~3인조 범행. LA폭동이후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가게를 갖 고있는 오렌지카운티거주 한인상인들이 흑인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 다. 강도들은 귀가하는 상인을 뒤쫓아가 집털이를 하는데 수법도 잔 인해져 문단속은 물론 미행여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8일: 폭동방화로 스프링클러 3일간 작동 - 수도료 1만불 “기절 통보”

8일: “성금이 무슨 전리품이냐” - 450만불 움켜쥐고 안내놓는 이정씨에 비난 화살. 14개 한인 경제단체도 성명.

10일: 피해교인에 성금지급- 기독교회협 1,100여명에 1백불씩.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심향구목사)는 뉴욕, 시카고, 필라데피아 등지의 교회협의회에서 보내온 성금 12만여달러를 협의회소속 23개교단의 교인 피해자 1천1백여명에게 각각 1백여달러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0일: “한인상인 불친절이 문제”- 흑인고객 44%가 한흑분규 원인으로 지적 (퀸즈칼리지 민병갑교수 설문조사)

11일: 폭동지역 상점 장사 안돼 “찔찔” - 최근 한인타운등 매상 50%격감. 할 인쿠폰 발행 인근 대형마켓은 호황.

11일: “성금 관리위로 이전하라.” 피해 식품상. 스왑밋협 피켓시위. 피해식품 상협회가 지난 8일 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가 있는 한미장로교회 앞 에서 피해자협의회가 본국성금을 조속히 성금위원회로 이관시킬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인데 이어 스왑밋피해자협의회(회장 임원식) 1백 50여 회원들도 10일 정오부터 1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

13일: 폭동피해 다업종협 발족(회장 김교복) - 식품상 및 스왑밋피해자 이외 의 기타업종 피해자들로 구성된 「폭동피해 다업종협의회」 (회장 김 교 복)가 12일 오전11시 코리아센터 빌딩에서 발족했다. 다업종협의회 김교 복회장(47)은 발족식에서 「성금을 두고 피해자협의회측에서 권리 를 주장 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 라며 「성금배분은 원칙 대로 성금관 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13일: 김성식씨 예심 21일로 - LA폭동당시 총기를 차내에 둔 혐의로 기소 된 한인청년단 소속 김성식씨(20)에 대한 예심이 또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피해자협의회 또 시위 - 1백여명 영사관 앞서 “잔여성금도 이관해라” 폭동피해자협의회 회원 1백여명은 12일 정오 LA총영사관 앞에서 성 금문 제와 관련 총영사관과 성금관리 위원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 다. 북과 팽과리를 동원한 이들 시위자들은 특히 박종상총영사와 하 기환 전 성금관 리분과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며 이들에게 LA를 떠나라고 주장했 다.

14일: 영사관 시위 “이제 그만” - 한달새 10여건, 공관업무 자주중단. 미언 론 에 잇따라 보도 “제 얼굴 침뱉기.” LA 총영사관이 집계한 통계에 따 르면 지난 한달만해도 영사관내외부에서 발생한 시위, 농성이 10여건 이 넘고 있으며 미국언론에 보도된 사례만도 5건이었다.

14일: 교회 성금 13일부터 지급- 교회협, 피해신도에 1백불씩.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심항구목사)는 13일 오전9시부터 협의회 사무실에서 협의회소속 LA폭동피해자에게 각각 1백달러씩의 피해성금을 전달하 기 시작했다.

18일: 베이커스필드 : 물가 낮고 안전한 전원도시. 새 정착지 손짓하는 베 이 커스필드. 소매업 중심 서비스산업 급속 발전. 주변에 위성도시 10곳 한인 3천여명 거주.

24일: 폭동 아직 끝난게 아니다 - 인종화합은커녕 복구 이권 놓고 감정누적

1992년 9월

9일: “폭동여파 교회살림 어렵다.”-헌금 줄어 재정상태 곤란. 각종 사업 차질.

21일: 성금분배 과정 공정성 잃어 유감 - 잘못된 일은 밝히고 책임은 물어야 당연 (김성광. 리시다거주)

22일: 리틀도쿄도 “불황 몸살” - 폭동으로 관광객발길 “뚝”. 매상 작년 절반 수준.

26일: 박종상 총영사 LAPD 방문 - 한인사회 폭동후유증. 치안유지로 치유 당부.

29일: 피해식품상협등 3개 폭동피해단체 - 이정회장 고발키로. “본국성금 사용에 의혹 많다”

29일: “인종편견 감사로 경영권 강탈” - LA타임스, 델타 세이빙스사건 대서 특필. 법원 감독관들의 오류. 경영진 무혐의 밝혀내 소수계 이해노력 없었고 OTS 동료 고용 압력

29일: LA시 전체가 보험으로 몸살-차 보험료 급등. 상해보험 사기 늘고.

폭동이후 「사업체보험」 까지 가세. LA폭동이후 보험회사들의 사업체 보험료 인상 및 특정지역 기피가 노골화되고 있어 사업체의 보험가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30일: 타운 폭동피해건물 복구- 보험회사 보상금 지급되자 곳곳서.. 럭키부동산. 구스포츠플러스 건물등 착공.

30일: “타운봉사” 젊은 단체 활동 왕성 - 1.5. 2세 주축 10여 개 단체

특성 있는 활동. 정치력 신장. 기성세대와 조화 모색.

30일: “고발한다” . “의혹없다” 성금분쟁 점입가경 - 피해식품상협회 등 3개 폭동피해단체가 28일 피해자협의회 및 이정회장에게 본국성금 용도해명을 요구하며 검찰에 정식 고발키로 한데 대해 피협측은 본국성금에 의혹이 없다며 고발조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피협 송원호 총무는 「본국 성금 4백45만여달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1992년 10월

3일: LA폭동 “가난이 죄” - 진상조사특별위 분석 킹사건이 화약고.. 「자포자기」가 불길러. 65년 와츠폭동때와 모든상황 비슷. 치유대책마련. 내년 1월부터 추진.

13일: 인종화합축제에 5만여명 참여 - 제3회 와츠페스티벌

13일: 성금지급 접수 재개 - 2차 성금 못 받은 피해자 대상

14일: 흑인청년 10명 방한 - 복음주의협 초청 한 흑 갈등 해소

14일: 폭동 때 불법 무기 소지 혐의 - 유동환씨 기소 취하

15일: 역 이민 작년 7천명 - 92 본국외교백서: 미국서만 5,539명으로 75.7% 차지. 본국 외무부가 최근 발표한 「92년도 외교백서」에 따르면 91 년도에 해외에서 본국으로 역이주한 사람은 모두 7천 29명으로

같은 해 해외이주자 1만7천4백33명의 40.3%(역이주율)에 달했다.

역이주율은 80년 2.8%, 81년3.23%, 82년 4.1%, 83년 4.69%, 84년 6.36%, 85년 8.24%, 86년 6.97%, 87년 9.49%를 기록하다가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88년 15.03%, 89년 22.44%, 90년 27.66%로 크게 늘어왔다.

16일: 폭동피해 보상신청 26일 마감

17일: “폭동성금 왜 말썽인가”- 국회 외무통일위소속 국정감사단(위원장 정재문)의원 4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10시정각 총영사관 5층에 마련된 국정 감사장에 들어선 정재문, 이만섭, 박실, 강신조 의원등 감사 위원들은 LA 총영사

관의 제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 답변에 나선 박종상 총영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17일: 웨스터 조사위, LA폭동 보고서 지적 “비상대비책 전무상태”.- 로드니 킹 평결이 직접 도와선 초기진압 실패로 사태 더 악화. LA시, 경찰이 비상사태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5개월간에 걸쳐 LA폭동원인을 조사해온 윌리엄 웨스터

특별조사위원회는 15일 조사를 마치고 비공식발표를 통해 LA폭동은 로드니 킹 평결이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보다 큰 원인은 초기

진압에 실패한 LAPD 와 시정부의 비상사태 대처방안이 엉망인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16일: SBA신청 어제 마감 - 폭동피해지원 14일 현재 7,040건. 2억 4천만불 승인

17일: 아르헨티나 한인회서 폭동성금 15,000불

19일: 총영사관 성명 : “한인 사회 단합에 찬물” : 피해자협회보 일부 내용에 우려 표명

20일: 재영업 불허 폭동피해 업주 “시에서 보상 해줘야” -LA시 인간관계위 보고서 지적. LA시정부는 LA폭동피해 업소의 재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상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라는 LA시 인간관계 위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발표했다.

21일: 폭동피해보상신청 25일 마감- 서류 접수시켜야 집단소송 가능

22일: 한미구호기금재단 조직개편 두 달째 “성금마무리 오리무중” 공익기금 쓸곳도 결정못해 미수령자들 우선지급 촉구. 한미구호기금재단(위원장 박철. 전성금관위원회)이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실을 마련한지 2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성금분배방법 및 공익기금용도를 결정하지 못해 폭동피해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폭동 폐허되고 다시 곳곳이 일어섰다. “여기가 내 샵터인걸요” - LA 폭동으로 전소된 한인리커업소 중 최초로 영업을 재개한 사우스센트럴 LA의 「원스톱 리커 & 마켓」 6110 S. Central Ave.)폭동 5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9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류효동(56).인희씨(55)부부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았던 영업재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못내 기쁘기 만하다 (사진).

27일: LA시 주정부 상대 「폭동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소송 전단계로 총 1천7백여건중 한인 1천4백건.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왔던 봉사센터 및 한미구호기금재단등 관련단체들은 지금까지 3개월여에 걸쳐 1천7백여 건을 접수, LA시를 비롯한 8개폭동지역 시정부, LA 카운티등 4개의 카운티 및 주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29일: 공고문 「4. 29 폭동구호성금을 수령 못하신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한미구호 기금재단. KOREAN AMERICAN RELIEF FUND. 3350 Wilshire Blvd. suite 970. LA., CA 90010

29일: “남은 건 병과 빚더미뿐”-LA폭동으로 삶의 터 잃은 서영학씨 부부의 오늘. 푸드스탬프로 생계잇고 학비마련길 암담. 「대인공포」 시달리며 집도 차압위기에 얼마 안 되는 가게판 돈 천 채 새 터 찾기 안간힘.

29일: 폭동당시 점포방화 보험금 신청 혐의 - 한인업주 부부 기소 . 검찰

“4 개월 걸친 수사 끝 확인” 주장 피해식품상협 “당시 실정모르는 억지”. 싸
우스센트럴의 리커. 마켓 한인업주부부가 보험금을 타내기위해 LA 폭동
당시 자신의 업소에 방화 했다는 혐의로 28일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29일: 「폭동피해보상」 당국서 거부 - 지난 26일 LA폭동피해자들이 LA시
정 부등에 낸 최소 1천7백70여만달러 이상의 LA폭동피해 보상신청과
관 련, LA시검사실은 모든 보상신청에 대해 보상거부서한을 28일 각 피 해
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12월

10일: 미드월서 민원센터 한인상대 설문조사 “60%가 영업재개 못해” - 정
부 지역미원실(NOC)미드월서센터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한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설문응답자 2백50명중 중간 집
계된 1백50명 가운데 78%인 1백17명이 정부지원에 대해 「불만족 하다」
고 응답했으며 「적당하다」 는 응답자는 20%, 「만족한다」 는 응답자는
겨우 2%에 그쳤다.

10일: 실직수당 중단 FEMA. SBA도 형식적 보조